

**스아치조열 환자에서 자가경골이식을 이용한 치험례**

여환호*, 박노승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조열 환자의 골이식을 통한 치료는 치조제의 형태의 유지, 치조열과 관련된 치아들의 정상적인 발육, 그리고 비기저부의 함몰형태 개선 등 여러 목적에 의하여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바라는 바 목적에 따라서 골이식 시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크게 골이식 시기에 따라서, 치조열환자의 골이식은 일차성 골이식과 이차성 골이식으로 분류되며 일차성 골이식의 공여부로는 늑골이 선호되며 이차성 골이식의 공여부로서는 두개골, 하악골 정중부, 늑골, 장골, 경골로부터 채취되는 해면골이 이용될 수 있다.

이식골의 채취가 쉽고 대부분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심각한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경골이식을 스아치조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그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Tibial Bone Grafting of the Alveolar Bone Defect in the Young Patients

Hwan-Ho Yeo*, No-Seung Park

Dep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Bone grafting of cleft alveolus patient has been done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alveolar ridge form, including the normal eruption and development of involved teeth, correcting the depressed alar base and so on.

As the purpose of the bone graft, graft timing has been disputed. Generally, graft timing is classified in primary and secondary bone graft, rib is preferred as the donor material for primary grafting, and calvarium, menton, rib, ilium, and tibia is used in secondary bone grafting.

Tibial bone graft of alveolar bone defect in young patient has the several advantages of easily being harvested, mostly consisting of cancellous bone and having the less complication.

Authors report cases of tibial bone grafting to the young cleft alveolus patient with literature reviews.